

안후넨의 몽골어 기술문법서에 대한 소개와 논평*

[서평] Juha A. Janhunen (2012), *Mongolian*, London Oriental and African Language Library 19,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xiv + Map + 320 pp.

유 원 수**

1. 책의 저자와 구성, 총평

저자인 핀란드 헬싱키대학의 안후넨 교수는 몽골어를 비롯한 우랄알타이 언어, 역사, 문화 연구로 저명한 학자이다. 1983년부터 1994년까지 『핀-우그르학회 저널』(*Journal de la Société Finno-Ougrienne* 78~85호)의 편집인을 지냈으며 2002년부터 『알타이학보』(*Altai Hakpo* 12~23호)의 편집고문직을 맡고 있다. 그는 몽골 제어의 음성, 음운, 표기법, 전사 등에 대한 학술 논문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였으며, 2003년 라우틀리지 어족 총서 5(Routledge language family series 5)로 출간된 『몽골 제어』(*The Mongolic*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L0016).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부교수

Languages, London, New York: Routledge)라는 전문연구서의 편집자이자 그 책의 20개 쪽지 가운데 제1장 원시 몽골 제어(Proto-Mongolic), 제2장 몽골 문어(Written Mongol), 제4장 함니강 몽골어(Khamnigan Mongol), 제8장 몽골 방언(Mongol dialects), 제19장 준 몽골 제어(Para-Mongolic)라고 하는 5 쪽지를 집필한 필자이기도 하다.

이번 서평의 대상은 그의 단독 저서로서 목차, 저자서문, 35종의 도표 목록, 이 책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될 부호와 언어학 용어들의 약어들, 몽골어 방언들의 대략적 위치를 표시한 지도, 저자가 몽골어(Mongolian)에 소속된다고 정한 수많은 몽골과 내몽골의 방언들을 하나의 언어체로 상정하고 이에 대해 공시적으로 기술한 본문(1-289), 텍스트 샘플, 샘플 페러다임, 문자표, 참고문헌, 문법 색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뒤표지에도 책의 성격을 간명하게 말해 주는 소개 글이 실려 있다.

서문에서는 이 책을 문법서로 규정하면서 몽골어에 대한 중간 길이의 공시적 기술이라고 하였고 일반 언어학자와 몽골학 전공자에게 두루 소용되도록 기존의 출판물, 개인적 관찰, 토박이 화자들과의 면담, 동료들과의 교신, 인터넷 등을 통해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몽골어를 기술하고 설명하였음을 밝혔다. 또한 뒤표지에서는 이 기술 문법의 초점이 방음, 교육,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구어들의 표준형들(the standard varieties of the spoken languages)에 있다고도 하여 몽골의 할하와 내몽골의 차하르 표준(~우세) 방언의 현상이 기술의 주된 대상이 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본문은 제1장 서론(Introduction: 1-20), 제2장 분절 구조(Segmental structure: 21-55), 제3장 형태소 구조(Morpheme structure: 57-93), 제4장 명사류 형태론(Nominal morphology, 혹은 체언 형태론: 95-141), 제5장 동사류 형태론(Verbal morphology, 혹은 용언 형태론: 143-184), 제6장 구 통사론(Phrasal syntax: 185-222), 제7장 절 통사론(Clausal syntax: 223-261), 제8장 복문(Complex sentences: 263-289)으로 나누고, 여기에 모두 117개의 항목

을 배치하여 기술하였다.

역량과 경험이 풍부한 저자가 몽골어의 음운, 형태, 통사에 관련된 거의 모든 주요 연구 주제, 혹은 몽골어의 다양한 면모 가운데 먼저 소개~토의 되어야 할 것을 가장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적확하고 균질적인 기술을 베풀었다고 하겠다.

2. 익숙지 않은 점, 유의할 점

이 책에는 서평자에게 쉽게 익숙해지지 않는 점,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 책이 초보자의 몽골어 학습서로 집필된 것은 아니어서 몽골어를 아직 충분히 배우지 않은 독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도 몇 가지 있어 보인다. 그중 하나는 독특한 표기체계이다. 더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언어를 본 모습에 더 가깝게 드러낼 수 있는 원칙일 수도 있겠지만 그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한 결과는 낯설 때가 있다. 예를 들어 몽골국, 울란바타르가 각각 /monggel ouls/, /oulaan baater/로, 내몽골, 후호호트의 몽골문어 형이 참고 문헌(Bibliography) 등에서 /vUibur Muvqghul, Guigaquda/로 표기되는 것 등이다. 이 어휘들은 로마자로 보통 /Mongol uls/, /Ulaanbaatar/, /Öbör mongyol/, /Kökeqota/(요즘 중국에서는 대개 /Xöxexota/, /Huhhot/로 전사)로 전사된다.

책의 2-4쪽 1.2 몽골 어족(The Mongolic language family)에서는 현존하는, 그리고 지난 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토박이 화자가 생존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몽골 제어를 네 개의 지리적, 언어적 특징을 지닌 지파들, 즉 (1) 다고르, (2) 공통 몽골 제어, (3) 시롱골 제어, (4) 모골어 지파로 분류하였다. 시롱골 제어 지파(the Shirongolic branch)에는 시라 요구르어, 몽구오르 그룹(the Monguor group), 보난 그룹을 두었고, 몽구오르 그룹에 몽골어(Mongghul), 몽구오르어(Mongghuor), 망구어르어(Mangghuer)를, 보

난 그룹(the Bonan group)에 보난어, 캉자어, 그리고 중국과 한국에서는 요즘에는 동상(東鄉)이라고 부르는 산타어를 두었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얀후넨들(Janhunen들, 2003:xvii)에서는 몽구오르 그룹 혹은 간쑤칭하이 언어복합체(Gansu-Qinghai complex)가 시라 요구르어, 몽골어, 망구어르어, 보난어, 산타어로 구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난 9년 동안 저자의 판단에도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의 변화, 즉 몽구오르 그룹이 3개의 언어를 포함하게 된 것, 보난의 지위가 개별언어에서 언어그룹으로 격상된 것 등이 그 그룹 안에 캉자어가 포함된 것처럼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해당 언어체들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쌓인 결과인지, 약간의 착오가 개입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공통 몽골 제어 지파에는 (1) 할하(Khalkha, *Xalx*), (2) 호르친(Khorchin, *Xorcen*), (3) 오르도스(Ordos, *Ordos*), (4) 함니강(Khamnigan, *Xamnyen'gen*), (5) 부리아드(Buryat, *Bouryaad*), (6) 오이라드(Oirat, *Oired*) 여섯 그룹을 소속시켰는데, 8-9쪽의 1.5 방언 구분(Dialectal division)에서 그중 할하그룹과 호르친그룹 전부, 좀 더 한계적으로(*more marginally*) 오르도스, 그리고 부리아드 그룹과 오이라드 그룹의 일부 전이 형태들이, 특히 부리아드 그룹 중 내몽골 훌룬보이르시(呼倫貝爾市) (저자는 Hulun Buir League라고 했으나 시 인민정부의 『건제연혁』(建制沿革)에 의하면 2001년 10월 10일부로 맹(盟)에서 시(市)로 승격)의 부리아드와 바르가 방언들, 오이라드 그룹 중 몽골 호브드의 오이라드 방언들이 저자가 몽골어(Mongolian)로 간주하는 언어체의 범위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유의할 것은 저자의 할하 그룹은 본류 할하(Khalkha proper, 3백만 몽골국민 대부분의 모어 방언), 호트고이드와 다르하드, 다리강가, 총골과 사르톨 같은 몽골국 내의 할하화한 방언들은 물론 내몽골 지역의 올란 찰 방언들(차하르, 오라드, 다르한, 모밍간, 두르벤 후헤드, 헤식텐)과 실링 골 방언들(우쭈친, 호치드, 아바가, 아바가 나르, 수니드)을 포함한다는 점이다. 호르친 그룹에 대해서는 제림 방언들(본류 호르친, 자삭트, 자로드, 잘라이드, 두르베드,

고를로스), 조 오드 방언들(아르 호르친, 바린, 웅니오드, 나이만, 아오한), 조소트 방언들(하르친, 투메드, 몽골진)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몽골어계 언어들에 대한 분류는 연구자들마다, 나라마다,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중국 몽골어학자들의 연구의 한 중간 결산이라고 할 Čenggeltei들(2004: 지도 1~3, 490, 774~777)은¹⁾ 몽골어계 언어로 몽골, 부리아드, 칼미크, 다고르, 동부 요구르, 몽구오르, 동샹, 보안(보난) 등 9개의 언어를 들고, 내몽골과 인근 지역의 몽골어 계통의 언어체들을 모두 몽골어로 보아 알라샤-에젠에, 오르도스, 차하르-실링골-올란참, 바린, 하르친-투메드, 호르친, 바르가 부리아드 방언으로 분류하였다. 강자어(Kangjīya, 康家語)를 같은 책의 독립된 항목에서 알타이어족의 몽골어계 언어의 하나로 소개하면서도(altai iǰayur kelen-ü mongyol töröl-ün kelen-dü baytan-a) 위 아홉 언어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즉 몽골어계 언어의 범위, 방언들 사이의 층위나 친소 관계에 대해 이 책과 견해가 다를 뿐 아니라 같은 책 안에서도 견해의 불일치가 정립되지 않은 것이라 하겠다. 몽골의 연구자들은 할하에 대해 대체로 분포 범위를 몽골(인민공화)국 경내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국의 연구자들도 이를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양국의 몽골어 전공자들 간의 정치적 자제~상호 존중의 발로일 가능성이 있다. 한편 첩겔테이들(Čenggeltei들, 2004:244)의 동부 할하 방언(Doronadu qalq-a-yin aman ayalǰu)의 다리강가 하위방언(Darigangy-a-yin salburi aman ayalǰu)에 대한 기술은 사용자를 수흐바타르 아이막의 아스가트, 할장, 다리강가, 바안홍고르(Bayan qongyor), 옹공, 나랑 솜의 할하인들(qalqāčud)이라고 하여 정착 이들 다리강가 지역 뿐 아니라 수흐바타르 아이막 전체에서도 최대다수인 다리강가 사람들

1) 308쪽의 참고 문헌에 Oyuunchimeg[ivUyuvcimag](ed.) (2004)로 나온 책이다. 오윤치맥(Oyuñčimeg)은 여러 분야를 망라할 몽골학 백과전서, 즉 *Mong ǰol sudul-un neberkei toli*(蒙古學百科全書)의 총 편집책임자로 보인다. 언어와 문자 편, 즉 *Üge kele üsüig bičig-ün boti*(語言文字卷)의 편집책임자는 첩겔테이(Čenggeltei)이다.

(Dar'ganga yastan)을 제외시키고 말았다. 바얀홍고르는 바얀텔게르의 착오다.

9-10쪽의 1.6 구어 표준어들(The oral standards)에서 저자는 몽골어 규범 언어(Mongolian normative language)가 울란바타르 말(the speech of Ulan Bator)과 일치한다는 흔한 오해, 키릴 할하 문어(Cyrillic Khalkha written language)가 울란바타르 방언(Ulan Bator dialect)에 기초한다는 오해를 경계하면서 키릴 할하(Cyrillic Khalkha)는 원칙적으로는 본류 할하의 북부 하위방언(the northern subdialects of Khalkha proper)을 반영하지만 폭넓은 방언적 특징(a broad variety of dialectal features)에 기초하는 인공의 문어 표준어(artificial written standard)라는 점을 상기시키려고 한다. 현재의 울란바타르 시의 도회지 말(current urban speech of Ulan Bator city)도 같은 방언 풀에 소속되지만 키릴 할하 규범(Cyrillic Khalkha norm)으로 대표되는 언어와는 특히 일부 면에서 거리가 멀다고 한다. 저자의 몽골어 규범 언어, 키릴 할하 문어, 키릴 할하, 키릴 할하 규범의 관계가 좀 더 분명하게 이해되면, 저자가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많은 비몽골인 전공자들의 연구 대상 몽골어가 접근이 비교적 쉬운 몽골의 서적과 출판물에 사용되는 몽골어, 또는 울란바타르 출신 화자의 구어 몽골어이고, 그러한 언어체가 마치 일반 언어학도들에게 몽골어의 전부 혹은 몽골어 그 자체로 오해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 아닐까 짐작할 뿐이다.

10쪽에서는 더 큰 방언적 편차 때문에, 내몽골의 몽골인들이 대체로 다양한 지역 방언들의 화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반면에 더 단일한 할하지배적 환경에 거주하는 외몽골(≒몽골국)의 몽골인들은 내몽골(내몽골자치구)과 중국 내 다른 외진 방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외몽골의 몽골인들 보다 내몽골의 몽골인들이 내몽골의 다른 방언 사용자들이나 중국 내 다른 지역 사용자들과 더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은 평소 다양한 방언적 편차에 단련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는 같은 내몽골에, 같은 중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상대의 관심사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피차간에 한어 차용어나 차용 표현을 알고 있고, 학교 교육과 언론매체를 통해 내몽골은 물론 중국 전체의 몽골어 표준 방언인 차하르(Chakhar)가 널리 보급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 언급할 창고~재정, 파마하다와 같은 어휘들의 차이도 몽골과 내몽골 등 중국 각지의 몽골어 화자들 간의 소통(속도)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1-12쪽의 1.7 인구 상황(The demographic situation)에서는 몽골어를 사용하는 몽골인이 압도적 다수인 몽골에 비해 내몽골에서는 몽골인이 13% 미만의 소수민족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한족과 회족(Hui, Chinese-speaking Moslems)으로서 도시 뿐 아니라 농촌에서도 이들이 압도적이라고 하였는바, 내몽골자치구 통계국 등 중국 행정당국이나 위키백과(維基百科) 등 대표적인 인터넷 사이트들이 제공하는 통계 정보에 의하면 이 지역의 몽골족 인구는 17% 정도이고 회족은 만주족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 미만이라고 한다.

18쪽에서는 송재목(Song 1997; 309쪽 참고 문헌에서 저자를 ‘Song, Jae May’라고 하였으나 송재목은 자신의 이름을 영문으로 ‘Song, Jaemog’으로 쓰고 있다), 우메타니(Umetani 2008), 브로식(Brosig)의 통사와 담론 분야 등(syntax and discourse)의 언어 간 비교 연구(cross-linguistic comparisons) 노력이 궁극적으로 몽골어에 대해 중요하고도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면모를 드러내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음운론, 형태론 등의 언어 기술의 전통적 분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송재목은 한국어, 한국어와 몽골어의 비교는 물론 몽골어의 음운론, 형태론, 의미론 분야의 논문도 꾸준히 발표하고 있는데, 송재목(1999)('할 하 몽골어의 음절구조 — 장모음과 이중모음을 중심으로', 『알타이학보』 9)도 그중 하나이다. 스반테손들(Svantesson, 2005:288)(*The Phonology of Mongolia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에는 이 논문의 저자가 ‘Song

Chae-mok(1999a)’으로 소개되었는데 이는 『알타이학보』 9호의 겉표지 뒷장의 목차에 제시한 ‘Jae-mog SONG’과도 다른 형태로 한국어 논문의 서지사항을 통일된 체계(아마도 맥쿤·라이샤워 체계)로 로마자로 전사하다 보니 저자의 이름도 그 체계대로 옮기게 된 것으로 보인다.

26-28쪽의 2.4 기본 자음(Basic consonants)에서 사용된 예 가운데 /*sangkool*/(storehouse)를 몽골의 몽골인들은 [saŋ]XH :]로 발음하고, ‘재정’(財政)으로 이해할 것으로 보인다. 한어 ‘燙髮’ [tàngfǎ](머리를) 파마하다)에서 온 /*tangfaax*/(to perm (the hair))’를 이해할 몽골인이 몽골에는 드물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대개 러시아어 /*delat’ ximicheskaya zavivku*/(파마하다)의 차용인 /*(iisende :) xi : m xi : lkex*/(파마하다(직. (제 머리털에) 약품 파마를 하게 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04-110쪽의 4.5 격 체계(The case system)에 /*-tai*/와 /*-gwai*/를 각각 소유격(Possessive)과 결여격(Privative)이라고 이름 붙여 포함시키고 통상 공동격(Comitative)이라고 부르는 /*-tai*/를 버린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앞의 /*-tai*/는 파생접사로, 뒤의 /*-tai*/는 격조사로 다루는 것이 여전히 합리적일 것이다. 151-153쪽 5.4 서법 표지(Modal markers)의 1. 강조명령(Precative)의 복수형 /*-AA=t*/, /*-g.AA=t*/는 강신(2004: 237-238)이 그의 『현대몽골어 연구』(한국몽골학회학술총서 4, 서울: 도서출판 문예림)에서 존재를 부정한 바 있는 /*-aat*⁴/이다. 이 형태소가 현대 할하 방언에 실재하는지를 기간의 연구서들에서 벗어나 토박이 화자들의 직관을 통해, 혹은 인터넷 매체의 텍스트에 출현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방법 등으로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몽골의 몽골어 화자에게는 193쪽의 [25]번, [26]번 문장의 /*en’ ail*/과 216쪽의 [83]번 문장의 /*neg ail*/이 야영지(this camp) 혹은 마을(a village)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저 집(this house)으로 여겨지지 않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214쪽 [78]번 문장을 그 스모 챔피언의 평소 성행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 아는 바없는 몽골어의 토박이 화자가 보거나 들었다면 그가

창을 박살낸 차의 주인이 스모 챔피언 자신이 아니라는 것은 짐작하겠지만, 피해 차주가 여자인지 남자인지까지는 알 도리가 없어 보인다. 216쪽의 [82]번 문장을 몽골의 몽골인이 들었다면 그가 10년 동안 살고 있는 도시(the city)가 그저 도시가 아니라 울란바타르라고 여길 것으로 보인다. 236쪽의 [139]번 문장은 몽골의 몽골인에게는 울란바타르에 많은 것이 텔레비전 수상기(television sets)가 아니라 텔레비전 채널(television channels)이라고 여길 것 같다. 또한 텔레비전을 [telbiis]가 아니라 [tʰeliwi : ʂ]로 발음할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260쪽의 [215]번 문장은 ‘양심은 빈 지갑일 뿐이다’(A poisonous thought is only an empty wallet.) 대신 ‘(그에게는) 양심과 빈 지갑뿐이다’(He certainly has only a poisonous thought and an empty wallet)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3. 이 책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기대

몽골어학의 주요 주제를 거의 망라하고 있는 이 책은 몽골어를 진지하게 연구하고자 하는 일반언어학 전공자, 일반언어학 전공 대학원생들에게 몽골어를 가르치는 몽골어 전공자, 그리고 몽골어를 전공하는 대학원생에게 요긴하게 소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또한 토박이 화자인 몽골어 전공자 및 일반언어학 전공자에게 오늘날 토박이 화자가 아닌 몽골어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는 몽골어의 현상들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기술하고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더 이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몽골의 연구자들에게 자기 언어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인 안목을 확보하게 할, 매우 흥미로운 참고서가 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몽골어의 토박이 화자인 연구자들이 중간 길이의 기술문법인 이 책에

서 혹시 설명을 더 보태고 싶은 부분을 발견한다면, 거기서부터 몽골어에 대한 새로운 각도에서의 관찰과 기술이 비롯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66-68쪽의 3.6 불안정한 비음(The unstable nasal)과 110-112쪽의 4.7 불안정한 비음이 있는 곡용의 패러다임(Paradigms with the unstable nasal)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들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 그중 속격에서의 구체성, 분명성, 명확성(concreteness, specificity, definiteness)과 관련해서는 몽골인 연구자라면 더 쉽게 합리적인 분석과 설명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 예를 들어 /tsɯ : /(바늘)와 어울리기 위해서는 /tsʰak/(시계)의 속격형이 왜 /tsʰaki : n/(시계의)이 되어 /tsʰaki : n tsɯ : /(시계 바늘)가 되어야 하고, /ɔ : sɔr/(끈)와 어울리기 위해서는 /tsʰakni : /(시계의)가 되어 /tsʰakni : ɔ : sɔr/(시계 줄)가 되어야 하는지, 또는 /saw/(통)와 어울리기 위해서는 /xɔk/(쓰레기)의 속격형이 왜 /xɔki : n/(쓰레기의)이 되어 /xɔki : n saw/(쓰레기통)가 되어야 하고, /ʊ : tʰ/(봉투)와 어울리기 위해서는 /xɔkni : /(쓰레기의)가 되어 /xɔkni : ʊ : tʰ/(쓰레기봉투)가 되어야 하는지 등이다.